

2024년 4월 29일(월) 인천 2024-24호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4월 30일(화) 조간부터 취급
하여 주십시오. 단, 통신/방송 매체는 4월
29일(월) 배포시부터 취급 가능

제 목: 코로나19 이후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및 특징

□ 4.29일(월)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「코로나19 이후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및 특징」을 발표

■ 자세한 내용은 “붙임” 참조

※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처: 인천본부 기획조사팀 홍창덕 조사역, 이현진 팀장

Tel: 032-880-0034(0031) Fax: 032-880-0048 E-mail: incheon@bok.or.kr

“한국은행 인천본부의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>지역본부>인천본부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 인천본부

코로나19 이후 인천지역 금융기관 여·수신 동향 및 특징

2024. 4

한국은행 인천본부

<작성자> 인천기획조사팀 홍창덕 조사역

<조언자> 인천기획조사팀 이현진 팀장

차 례

< 요약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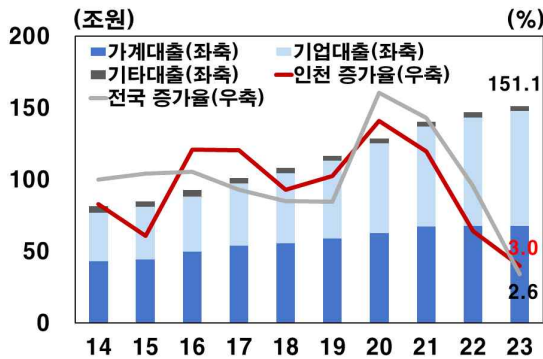
I. 검토배경	1
II. 인천지역 금융기관 여·수신 동향	2
1. 개황	2
2. 여신	5
3. 수신	8
4. 수신 대비 여신 비율	10
III. 코로나19 이후 주요 특징	11
1. 여·수신 증가율의 하락세	11
2. 코로나19 피해업종 중심의 산업별 여신 증가	31
3. 높은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	51
IV. 평가 및 요약	17

< 요약 >

□ 인천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, 이후 증가율이 하락하는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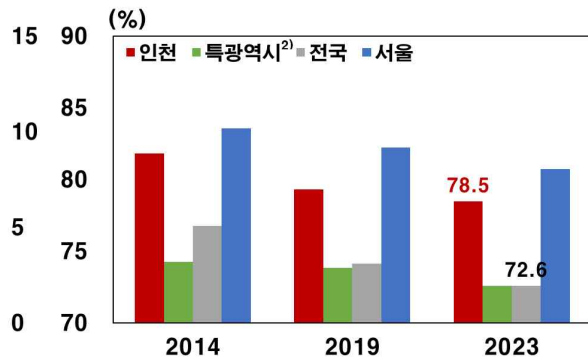
- 인천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2023년말 기준 151.1조원(전국 대비 4.8%)을 기록하였으며, 예금은행 여신 비중(78.5%)은 특·광역시(72.6%)와 전국(72.6%)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
- 가계대출은 2022년부터 기타대출이 감소로 전환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또한 하락하였으며, 기업대출은 2020년중 급증하였으나, 이후 기업대출금리 상승 등에 기인하여 증가율이 둔화

인천 여신¹⁾ 및 증가율²⁾



주: 1) 연말 잔액
2) 전년말 대비 증가율
자료: 한국은행

지역별 예금은행 여신 비중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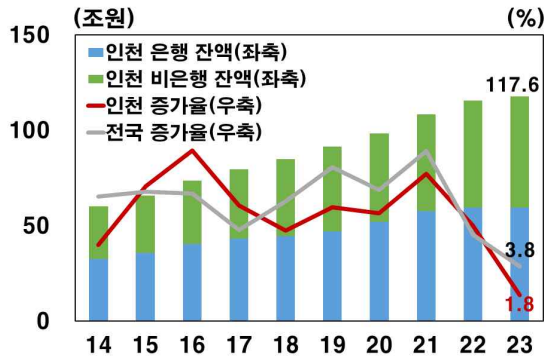


주: 1) 전체 여신 대비 예금은행 여신의 비율
2) 인천, 서울 제외
자료: 한국은행

□ 인천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증가하였으나, 2023년중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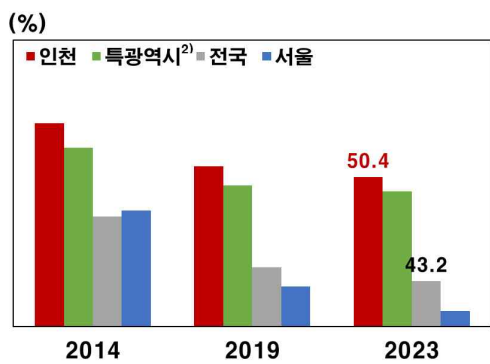
- 인천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2023년말 기준 117.6조원(전국 대비 2.5%)을 기록하였으며, 예금은행 수신 비중(50.4%)은 특·광역시(49.4%)와 전국(43.2%)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
- 수신 증가율은 코로나19 발생 직후(2020~21년중)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등에 기인하여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, 2022년 이후 예금은행 요구불예금과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둔화

인천 금융기관 수신¹⁾ 및 증가율²⁾



주: 1) 연말 잔액
2) 전년말 대비 증가율
자료: 한국은행

지역별 예금은행 수신 비중¹⁾



주: 1) 전체 수신 대비 예금은행 수신의 비율
2) 인천, 서울 제외
자료: 한국은행

□ 인천지역 예금은행의 세부업종별 기업대출은 코로나19 기간중 **피해가 컸던 세부업종과 부동산 관련 업종**을 중심으로 **산업별 대출금이 증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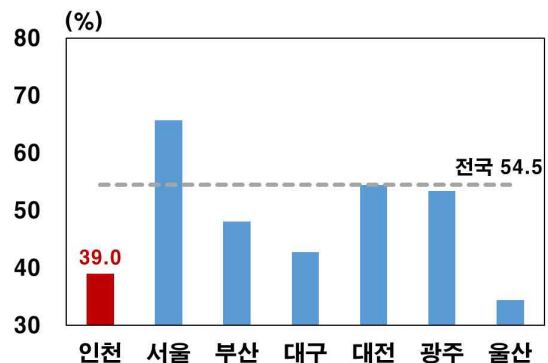
- 도·소매, 사업서비스, 숙박·음식업과 건설업, 부동산업의 코로나19 기간중 대출금 증가율이 인천지역 평균을 상회
- 그러나, 인천지역의 산업별 대출금의 증가율은 전국 수준을 하회함에 따라 지역 내 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
- 부동산을 제외한 서비스업 세부업종의 코로나19 이전 대비 운영자금 증가율에서 인천은 특·광역시 중 울산 다음의 최하위를 기록

인천지역 산업별 대출금 비중¹⁾

	2019년	2023년
제조업 (24.4)	46.4	43.1
서비스업 (57.6)	48.6	51.4
부동산 (7.5)	18.8	19.4
사업서비스 (6.8)	1.7	2.3
도·소매 (5.8)	13.4	14.3
숙박·음식점 (2.2)	3.4	3.5
건설업 (8.0)	2.2	2.5

주: 1) 괄호 안은 2022년 기준 지역 GRDP 대비 산업별 명목 GRDP의 비중
자료: 한국은행

지역별 서비스업¹⁾ 운영자금²⁾ 증가율³⁾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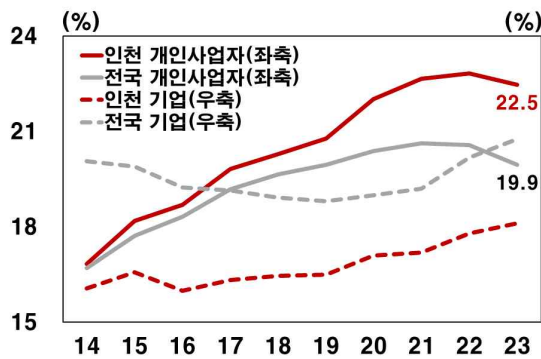
주: 1) 부동산업 제외
2) 예금은행 산업별 대출금 운영자금 기준
3) 2019년말 대비 2023년말 증가율
자료: 한국은행

□ 인천지역 **예금은행** **개인사업자 대출**은 인천지역의 전국 대비 낮은 기업대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**전국보다 더 높은 증가율**을 기록

○ 코로나19 이전 대비 인천지역의 전국보다 낮은 기업대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,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(+38.8%)은 전국 수준(+33.0%)을 상회함에 따라 인천지역 개인사업자의 대출의존도가 높았음을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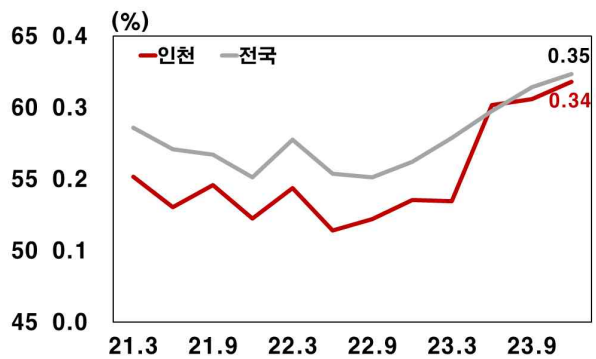
○ 인천지역의 개인사업자의 대출의존도가 높은 가운데, 2023년 이후 고정이하여신 비율 등이 상승하는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향후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

예금은행 여신 대비 대출 비중¹⁾



주: 1) 연말 잔액 기준
자료: 한국은행

개인사업자 고정이하여신 비율¹⁾



주: 1) 분기말 기준
자료: 국내은행 업무보고서

I. 검토배경

- 코로나19는 글로벌 및 국내 금융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, 이에 따라 국내 여·수신금리와 인천의 지역금융 또한 많은 변화를 겪음
 - 코로나19 확산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책당국은 실물부문 안정 및 금융경색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책금리를 신속히 인하
 - 엔데믹 국면으로 전환된 2022년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함에 따라 정책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면서 국내 여·수신금리 또한 빠르게 상승
- 코로나19로 인해 금리 및 유동성의 변동성이 컸던 가운데 인천지역 금융기관의 여·수신 동향과 주요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**코로나19가 인천의 지역금융에 미친 영향**을 이해하고자 함

<참고 1>

지역별 여수신 개요

- 지역별 여수신 통계는 한국은행이 매월 공표하는 통화금융통계로, 지역의 예금취급기관·계정·차주별 여·수신 잔액 통계를 제공
- 예금취급기관은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(이하 비은행기관)으로 분류
 - 예금은행은 일반은행(시중은행, 지방은행, 외국은행)과 특수은행(기업은행, 농협은행, 수협은행, 산업은행)으로 구성
 - 비은행기관은 종합금융회사, 자산운용회사, 신탁회사, 상호저축은행,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우체국예금, 수출입은행 등으로 구성
- 차주별로는 여신에 한해 가계대출, 기업대출, 기타로 분류
 -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(신용대출 등)로 구분되며, 기업대출은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대출로 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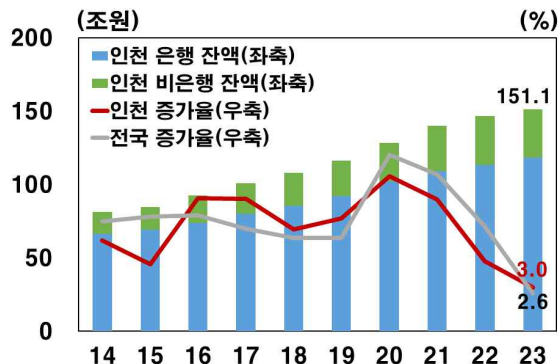
Ⅱ. 인천지역 금융기관 여·수신 동향

1 개황

(금융기관 여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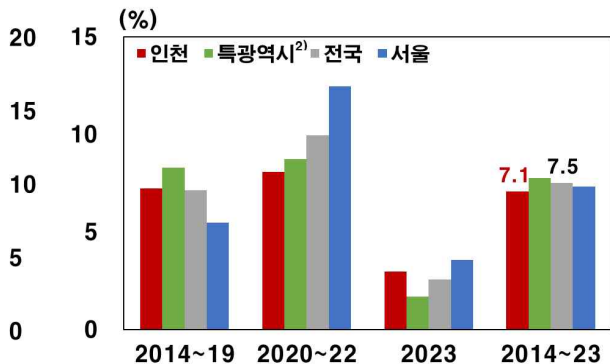
- 인천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2023년말 기준 **151.1조원**(전국 대비 4.8%)을 기록
 - 2020년 여신 증가율이 10.6%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발생 직후 인천지역 여신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, 2022년 4.8%, 2023년 3.0%로 이후 증가율이 하락하는 추세
 - 최근 10년간(2014~23년중) 인천지역 여신의 연평균 증가율은 7.1%로, 특·광역시(7.7%)와 전국(7.5%) 대비 낮은 수준

인천 금융기관 여신¹⁾ 및 증가율²⁾



주: 1) 연말 잔액
2) 전년말 대비 증가율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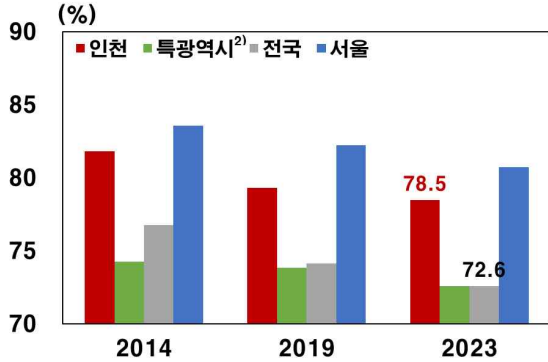
지역별 여신 증가율¹⁾



주: 1)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
2) 인천, 서울 제외
자료: 한국은행

- 2023년말 기준 인천지역의 예금은행 여신 비중은 **78.5%**로, 특·광역시(72.6%)와 전국(72.6%) 대비 **높은 수준을 유지**
 - 2023년말 기준 인천지역 예금은행 여신은 118.5조원, 비은행 금융기관은 32.5조원을 기록
 - 코로나19 발생 직후(2020~21년중)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, 최근 감소로 전환되면서 2023년중 -1.9%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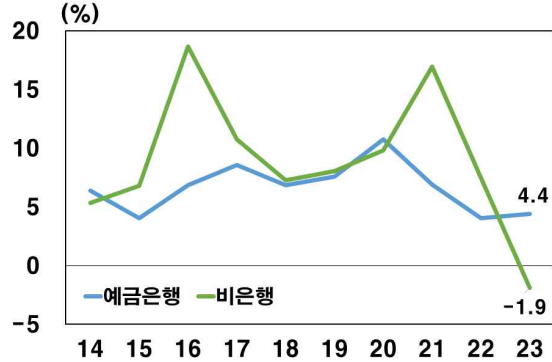
지역별 예금은행 여신 비중¹⁾



주: 1) 전체 여신 대비 예금은행 여신의 비율
2) 인천, 서울 제외

자료: 한국은행

인천 금융기관별 여신 증가율¹⁾



주: 1) 전년말 대비 증가율

자료: 한국은행

(금융기관 수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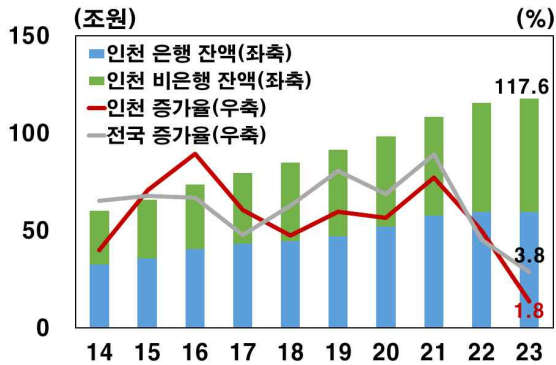
□ 인천지역 금융기관 수신*은 2023년말 기준 117.6조원(전국 대비 2.5%)을 기록

* 시장성 수신 제외

○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천지역 수신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, 최근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하여 2023년중 1.8%를 기록

○ 최근 10년간(2014~23년중) 인천지역 수신의 연평균 증가율은 7.5%로, 특·광역시(6.2%) 대비 높으나, 전국(8.3%)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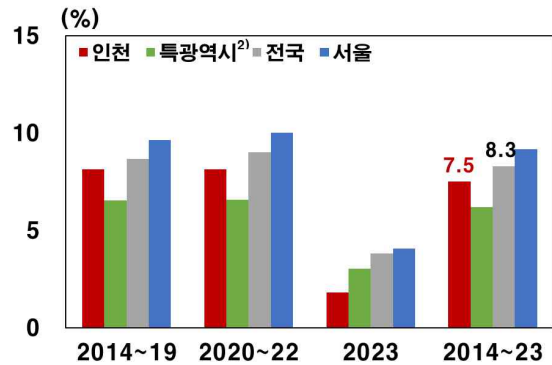
인천 금융기관 수신¹⁾ 및 증가율²⁾



주: 1) 연말 잔액
2) 전년말 대비 증가율

자료: 한국은행

지역별 수신 증가율¹⁾



주: 1)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
2) 인천, 서울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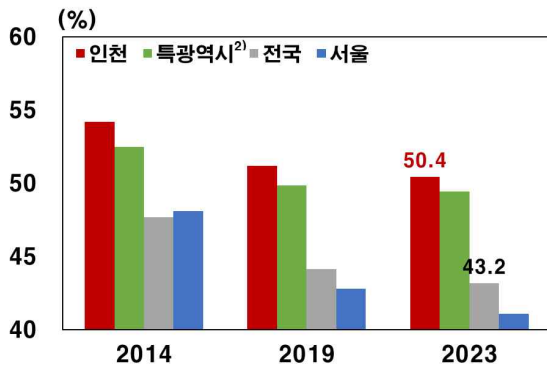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□ 2023년말 기준 인천지역의 예금은행 수신 비중은 50.4%로, 특·광역시(49.4%)와 전국(43.2%)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

○ 2023년말 기준 인천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59.3조원, 비은행 금융기관은 58.3조원을 기록

○ 코로나19 발생 직후 비은행 금융기관 수신 증가율이 급락하면서 예금은행 수신 증가율을 하회하였으나, 이후 다시 반등하며 예금은행 수신 증가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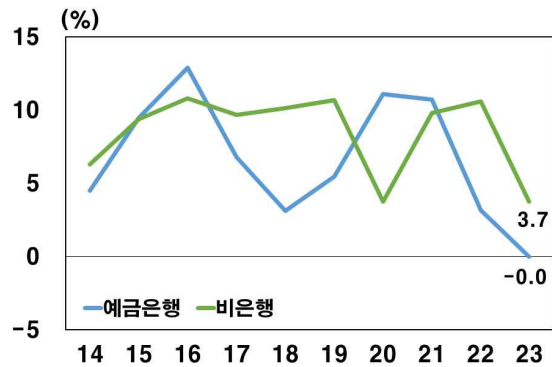
지역별 예금은행 수신 비중¹⁾



주: 1) 전체 수신 대비 예금은행 수신의 비율
2) 인천, 서울 제외

자료: 한국은행

인천 금융기관별 수신 증가율¹⁾



주: 1) 전년말 대비 증가율

자료: 한국은행

<참고 2>

인천지역 금융기관 여·수신¹⁾ 동향²⁾

여신(단위 : 십억원)		2014	2019(A)	2023(B)	B-A
예금은행	가계대출	32,443	46,032	54,997	+8,965
	기업대출	30,900	44,526	61,541	+17,015
	기타	3,021	1,600	1,973	+373
	합계	66,365	92,158	118,511	+26,353
비은행	가계대출	14,766	24,037	32,544	+8,507
	기업대출	10,356	12,589	12,589	-1
	기타	2,833	10,034	18,482	+8,448
	합계	14,766	24,037	32,544	+8,507
수신(단위 : 십억원)		2014	2019(A)	2023(B)	B-A
예금은행		32,603	46,757	59,325	+12,568
비은행		27,545	44,614	58,317	+13,703

주: 1) 시장성 수신 제외
2) 연말 잔액

자료: 한국은행

2 여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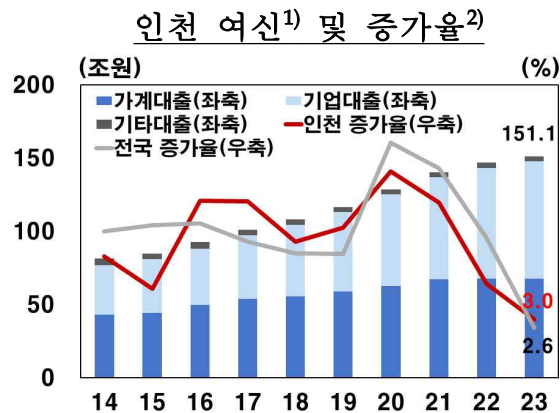
(차입주체별)

□ 2023년말 기준 **인천지역 여신**은 **151.1조원**(전국 대비 4.8%)으로, 가계대출 67.6조원, 기업대출 80.0조원, 기타* 3.4조원으로 구성

*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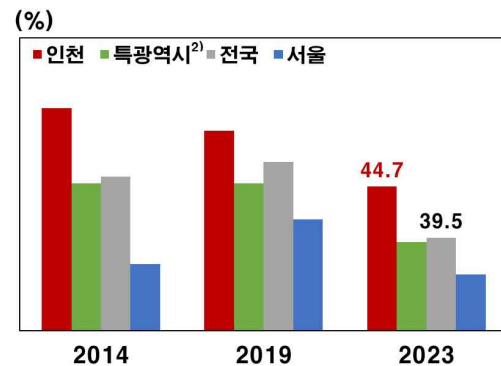
○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천지역 여신 증가율이 전국 여신 증가율을 밑돌다가 최근 인천의 여신 증가율이 역전

○ 인천지역 여신 내 가계대출의 비중은 44.7%로, 특·광역시(39.1%)와 전국(39.5%)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



주: 1) 연말 잔액
2) 전년말 대비 증가율
자료: 한국은행

지역별 여신 가계대출 비중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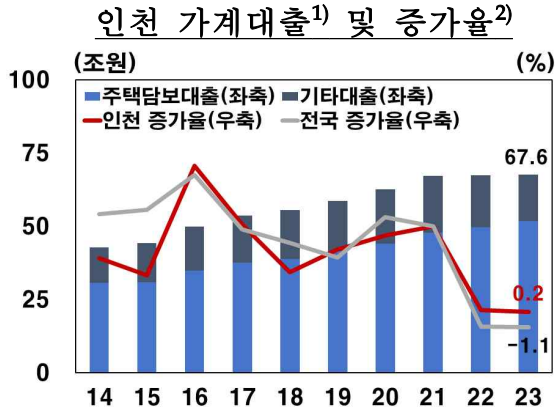


주: 1) 해당 지역 여신 내 가계대출의 비중
2) 인천, 서울 제외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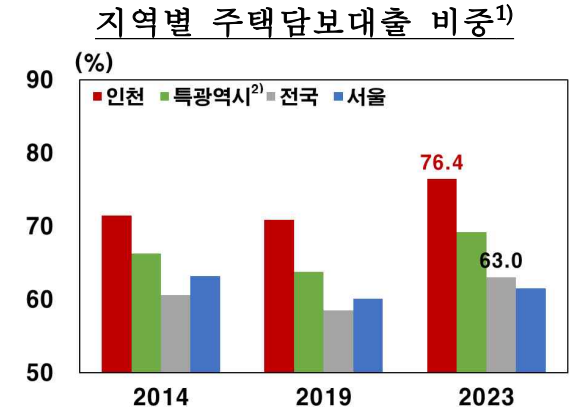
□ 2023년말 기준 **인천지역 가계대출**은 **67.6조원**(전국 대비 5.5%)으로, 주택담보대출 51.6조원과 기타대출 15.9조원으로 구성

○ 2022년 이후 인천지역과 전국 모두 가계대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, 특히 전국은 최근 2년 연속 가계대출이 감소

○ 인천지역 가계대출 내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76.4%로, 특·광역시(69.2%)와 전국(63.0%)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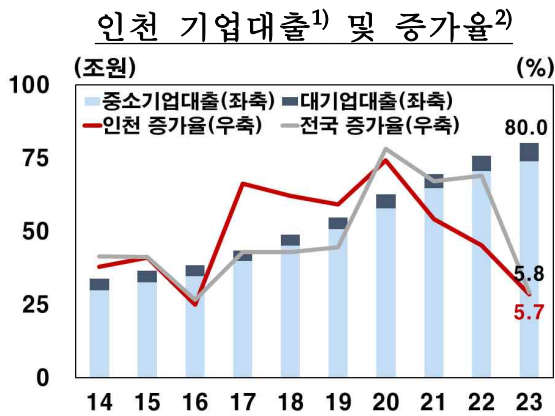
주: 1) 연말 잔액
2) 전년말 대비 증가율
자료: 한국은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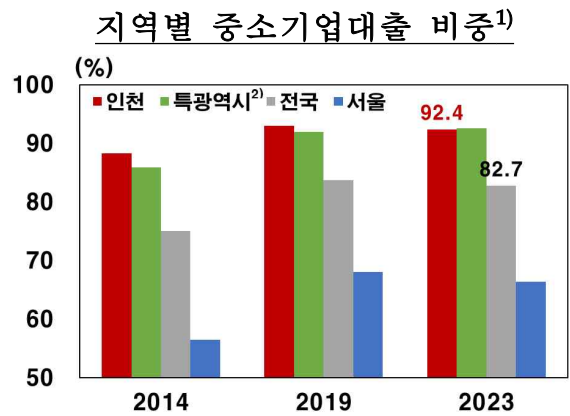
주: 1) 가계대출 내 주택담보대출의 비율
2) 인천, 서울 제외
자료: 한국은행

□ 2023년말 기준 **인천지역 기업대출**은 **80.0조원**(전국 대비 4.5%)으로, 중소기업대출 73.9조원과 대기업대출 6.1조원으로 구성

- 코로나19 이전까지 인천지역의 기업대출 증가율이 전국 수준을 상회하였으나, 코로나19 이후 전국의 기업대출 증가율을 하회
- 인천지역 기업대출 내 중소기업대출의 비중은 92.4%로, 특·광역시(92.6%) 대비 소폭 낮고 전국(82.7%) 대비 높은 수준



주: 1) 연말 잔액
2) 전년말 대비 증가율
자료: 한국은행



주: 1) 기업대출 내 중소기업대출의 비율
2) 인천, 서울 제외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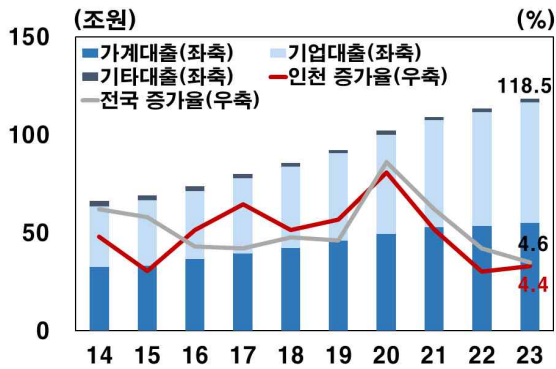
(여신기관별)

□ 2023년말 기준 **인천지역 예금은행 여신**은 **118.5조원**(전국 대비 5.2%)으로, 가계대출 55.0조원, 기업대출 61.5조원, 기타* 2.0조원으로 구성

*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

○ 인천지역 예금은행 여신 내 가계대출의 비중은 47.2%로, 특·광역시(40.5%)와 전국(40.4%)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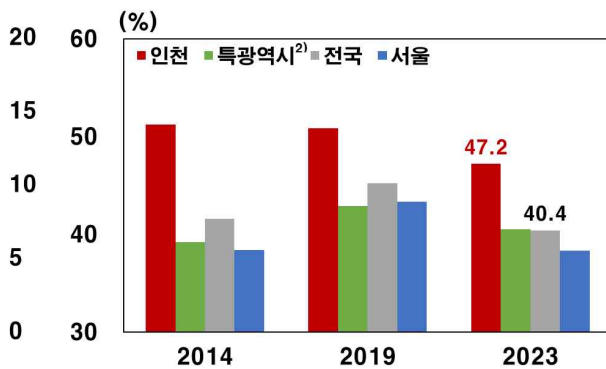
인천 예금은행 여신¹⁾ 및 증가율²⁾



주: 1) 연말 잔액
2) 전년말 대비 증가율

자료: 한국은행

지역별 예금은행 가계대출 비중¹⁾



주: 1) 예금은행 여신 내 가계대출의 비율
2) 인천, 서울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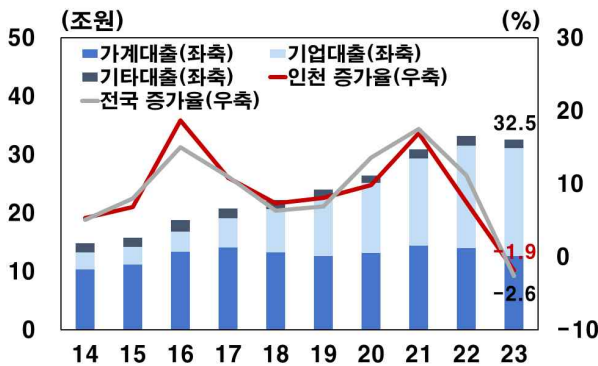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□ 2023년말 기준 **인천지역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**은 **32.5조원**(전국 대비 3.8%)으로, 가계대출 12.6조원, 기업대출 18.5조원, 기타* 1.5조원으로 구성

*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

○ 인천지역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 내 가계대출의 비중은 38.7%로, 특·광역시(35.3%)와 전국(37.1%) 대비 높은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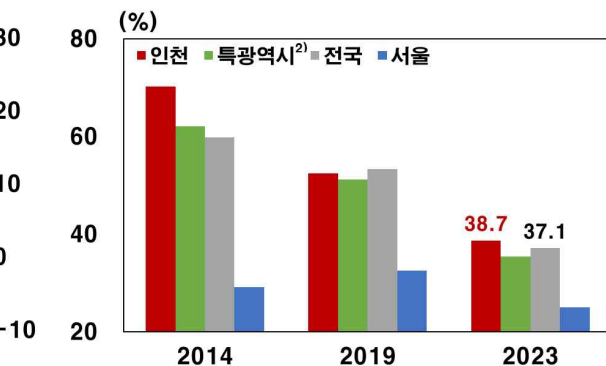
인천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¹⁾ 및 증가율²⁾



주: 1) 연말 잔액
2) 전년말 대비 증가율

자료: 한국은행

지역별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대출 비중¹⁾



주: 1)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 내 가계대출의 비율
2) 인천, 서울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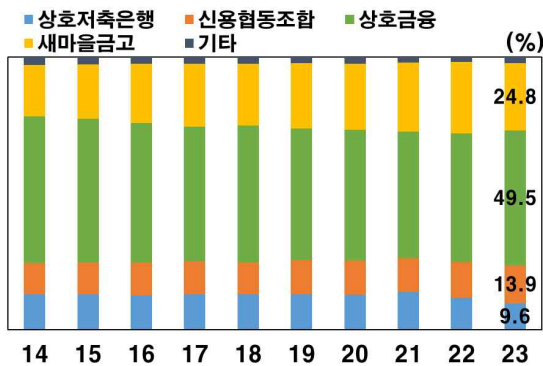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□ 인천지역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은 2023년말 기준 상호금융(49.5%), 새마을금고(24.8%), 신용협동조합(13.9%), 상호저축은행(9.6%), 기타(2.2%) 순으로 구성

○ 인천지역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 중 새마을금고 여신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, 최근 2022년말 26.2%에서 2023년말 24.8%로 비중이 하락

○ 인천지역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 내 상호금융 여신의 비중은 특·광역시(36.7%)와 전국(44.8%) 대비 높은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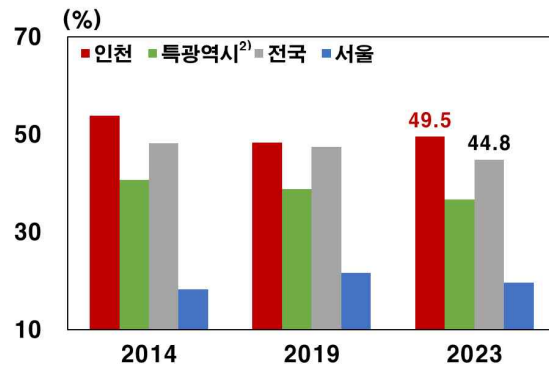
인천 비은행 금융기관 기관별 비중¹⁾



주: 1) 연말 잔액 기준

자료: 한국은행

지역별 상호금융 비중¹⁾



주: 1) 비은행 금융기관 여신 내 상호금융 여신의 비율
2) 인천, 서울 제외

자료: 한국은행

3 수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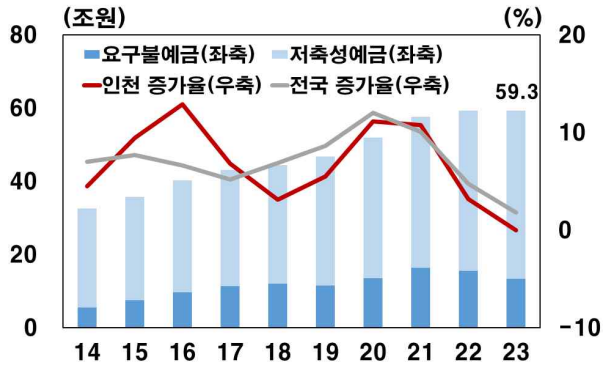
(수신기관별)

□ 2023년말 기준 인천지역 예금은행 수신*은 59.3조원(전국 대비 3.0%)으로, 요구불예금 13.4조원과 저축성예금 46.0조원으로 구성

* 시장성 수신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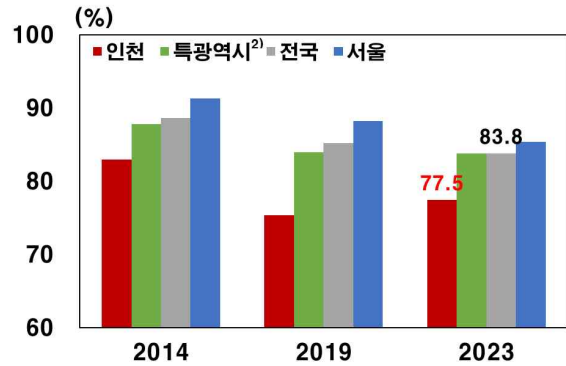
○ 인천지역 예금은행 수신 내 저축성예금의 비중은 77.5%로, 특·광역시(83.8%)와 전국(83.8%)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

인천 예금은행 수신¹⁾ 및 증가율²⁾



주: 1) 연말 잔액
2) 전년말 대비 증가율
자료: 한국은행

지역별 예금은행 저축성예금 비중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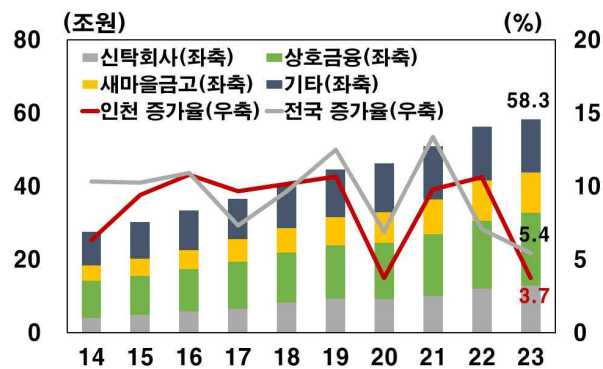


주: 1) 예금은행 수신 내 저축성예금의 비율
2) 인천, 서울 제외
자료: 한국은행

□ 2023년말 기준 인천지역 비은행 금융기관 수신은 58.3조원(전국 대비 2.2%)으로, 상호금융 19.9조원, 신탁회사 12.8조원, 새마을금고 11.0조원 등으로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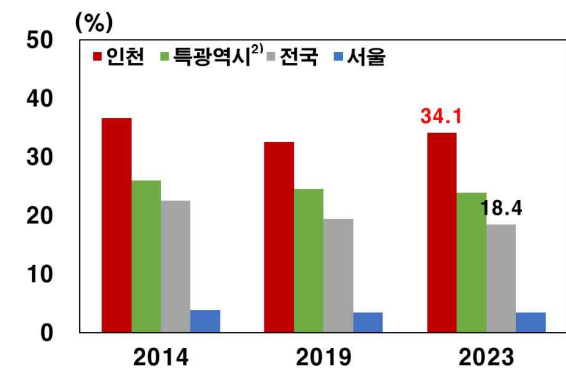
- 인천지역 비은행 금융기관 수신 내 상호금융의 비중은 34.1%로, 특·광역시(23.9%)와 전국(18.4%)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
- 비은행 금융기관 수신 중 자산운용회사의 비중은 감소(2014년 11.4% → 2023년 4.9%)하고 신탁회사(14.6% → 21.9%)의 비중이 증가

인천 비은행 금융기관 수신¹⁾ 및 증가율²⁾



주: 1) 기말 잔액
2) 전년말 대비 증가율
자료: 통계청 지역소득

지역별 비은행 금융기관 상호금융 비중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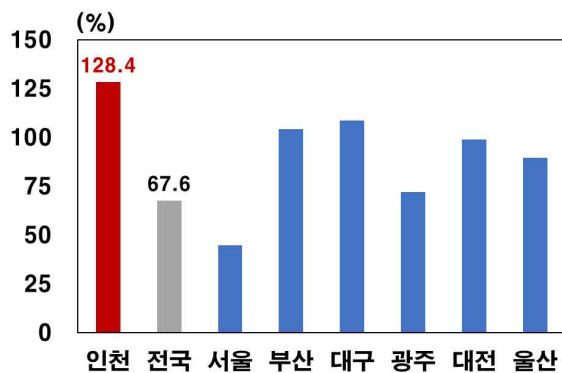


주: 1) 비은행 금융기관 수신 내 상호금융의 비율
2) 인천, 서울 제외
자료: 통계청 지역소득

4 수신 대비 여신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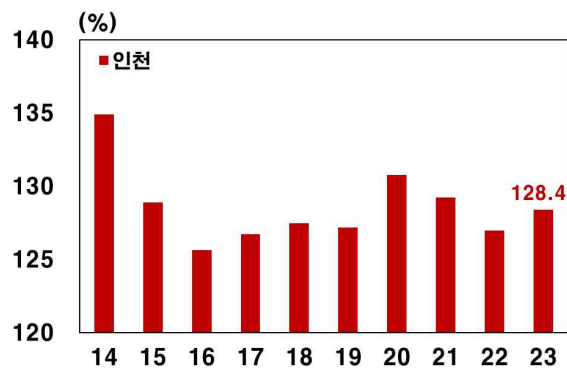
- 2023년말 기준 인천지역 금융기관 수신 대비 여신 비율은 128.4%로, 전국(83.8%)에서 가장 높은 수준
 - 높은 수신 대비 여신 비율은 지역 내 수신보다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된 자금(지역 내 여신)이 많다는 의미로, 역대로 유입된 자금이 많음을 시사
 - 인천지역 수신 대비 여신 비율은 코로나 발생 직후인 2020년 크게 상승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반등

지역별 수신 대비 여신 비율¹⁾



주: 1) 2023년말 잔액 기준
자료: 한국은행

인천 금융기관 수신 대비 여신 비율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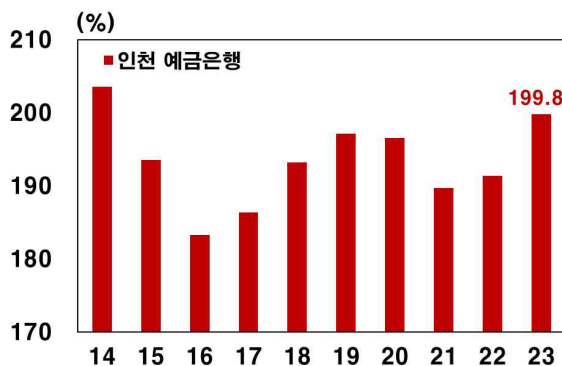


주: 1) 연말 잔액 기준
자료: 한국은행

- 인천지역 예금은행 수신 대비 여신 비율은 199.8%로, 전국(113.7%) 수준을 크게 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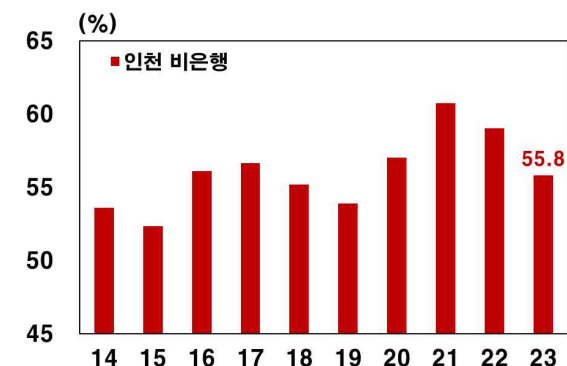
- 비은행 금융기관 수신 대비 여신 비율(55.8%) 또한 전국(32.6%) 수준을 상회

인천 예금은행 수신 대비 여신 비율¹⁾



주: 1) 연말 잔액 기준
자료: 한국은행

인천 비은행 금융기관 수신 대비 여신 비율¹⁾



주: 1) 연말 잔액 기준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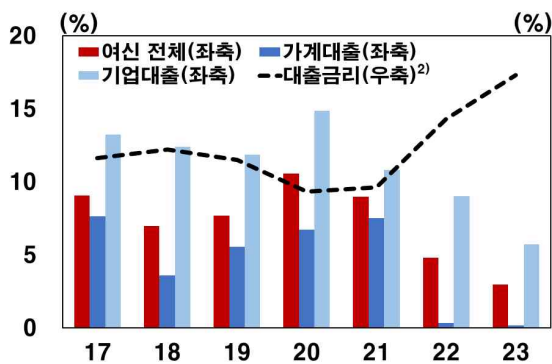
Ⅲ. 코로나19 이후 주요 특징

1 여·수신 증가율의 하락세

□ 인천지역 여신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증가율이 상승하였으나, 이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증가율이 모두 둔화되며 하락 추세로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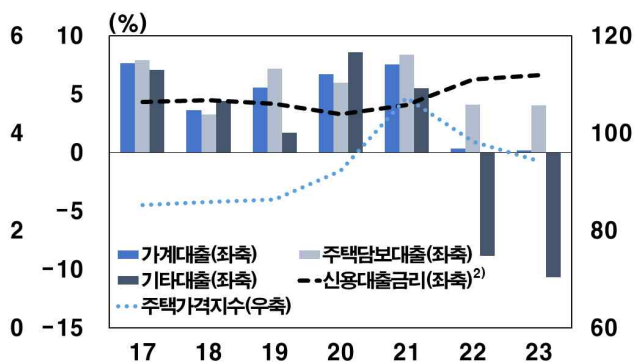
○ 인천지역 가계대출은 여신금리 인상, 대출규제,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2022년부터 기타대출이 감소로 전환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또한 하락

인천 차입주체별 여신 증가율¹⁾



주: 1) 전년말 대비 증가율
2) 예금은행 대출금리 평균, 신규취급액 기준
자료: 한국은행

인천 가계대출 증가율¹⁾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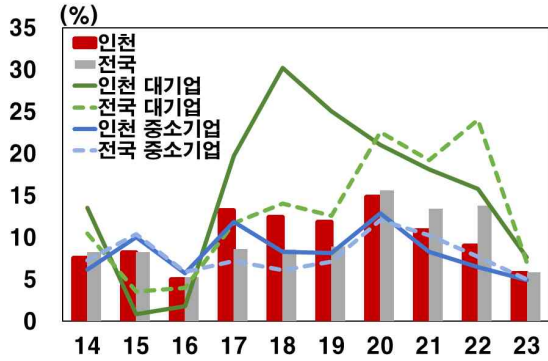
주: 1) 전년말 대비 증가율
2) 예금은행 신용대출금리 평균, 신규취급액 기준
자료: 한국은행

□ 인천지역 기업대출의 증가율은 2020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전국보다 가파른 둔화세가 지속

○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적 악화와 불확실성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노력 등에 기인하여 기업대출은 2020년중 급증하였으나, 이후 기업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증가율이 둔화

○ 인천지역의 경우, 2021년 이후 모든 기업대출 차입주체(대기업, 중소기업)와 산업대분류(제조업, 서비스업)에서 전국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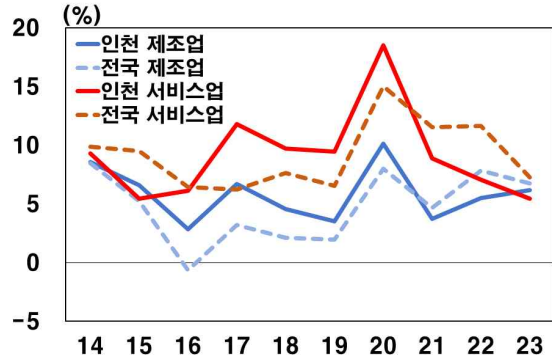
차입주체별 기업대출 증가율¹⁾



주: 1) 전년말 대비 증가율

자료: 한국은행

산업대분류별 대출금¹⁾ 증가율²⁾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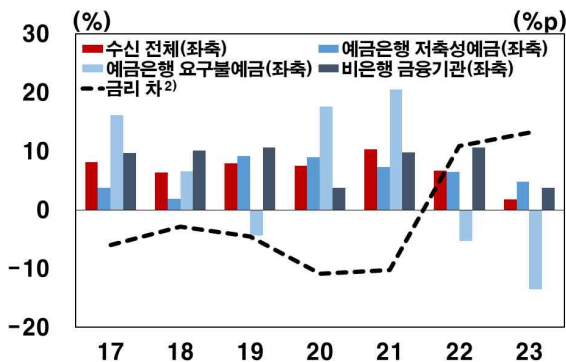
주: 1) 산업별 대출금 기준
2) 전년말 대비 증가율

자료: 한국은행

□ 인천지역 수신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, 2022년 이후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

- 불확실성에 대응한 예비적 동기와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등에 기인하여 수신 증가율은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 직후(2020~21년중) 상승
- 그러나, 이후 수신 증가율이 하락하였으며, 특히 금리차가 축소되며 수신 유인이 감소한 예금은행 요구불예금과 상호저축은행, 그리고 2023년중 부실 우려가 제기되었던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수신이 부진

인천 기관·주체별 수신 증가율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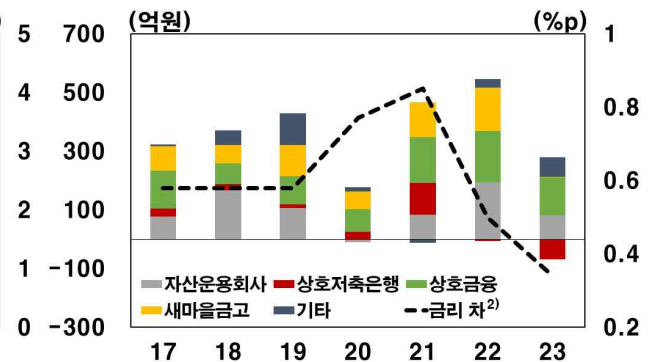


주: 1) 전년말 대비 증가율

2) 순수저축성수신금리-요구불예금수신금리, 기말 잔액 기준

자료: 한국은행

인천 비은행 금융기관 수신 증감¹⁾



주: 1) 전년말 대비 증감액

2) 상호저축은행수신금리-예금은행수신금리, 정기예금(1년) 신규취급액 기준

자료: 한국은행

2 코로나19 피해업종 중심의 산업별 여신 증가

- 인천지역 기업대출(예금은행 산업별 대출금 기준)을 세부업종별로 증감내역을 분석한 결과, **코로나19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증가**
 - 코로나19 기간중 피해가 컸던 **도·소매(+46.7%)**는 2019년 대비 2023년 기준 **대출금 증가율**이 인천지역 **평균(+37.7%)**을 **상회**하였으며, 인천지역 전체 산업별 대출금 증가규모의 16.6%를 기록
 - 이외에도 기간중 사업서비스업(+93.3%), 숙박·음식업(+42.3%) 등이 높은 대출금 증가율을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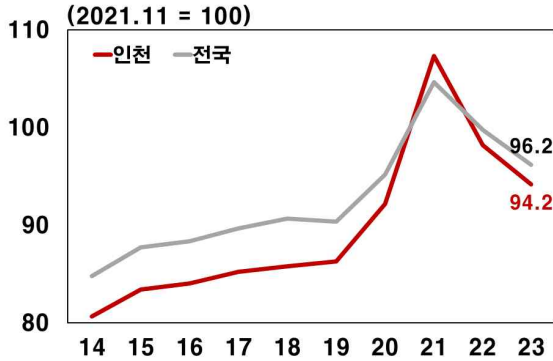
인천지역 산업별 대출금 비중¹⁾

		인천				전국
		2014	2019(A)	2023(B)	B - A	2023
제조업	(24.4)	49.8	46.4	43.1	-3.3	31.1
기계·운송장비·기타	(5.9)	14.2	13.8	12.1	-1.7	8.6
전기·전자·정밀기기	(5.7)	8.1	6.8	6.3	-0.5	5.0
비금속광물·금속제품	(5.6)	13.9	12.3	10.7	-1.6	6.0
석탄·석유화학	(4.7)	7.6	7.4	7.7	+0.3	6.0
음식료	(1.3)	1.7	1.8	2.2	+0.3	2.5
목재·종이·인쇄·복제	(1.0)	3.5	3.5	3.3	-0.3	1.3
섬유·의복·가죽제품	(0.2)	0.9	0.8	0.8	-0.0	1.7
서비스업	(57.6)	44.0	48.6	51.4	+2.8	61.0
운수·창고	(10.5)	2.7	2.5	2.3	-0.2	2.6
부동산	(7.5)	12.5	18.8	19.4	+0.6	22.2
사업서비스	(6.8)	1.6	1.7	2.3	+0.7	3.4
공공·행정·국방·사회보장	(6.6)	7.8	3.3	2.8	-0.5	2.0
도·소매	(5.8)	11.9	13.4	14.3	+0.9	13.3
보건·사회복지	(5.1)	2.4	2.9	3.3	+0.4	3.0
교육 서비스	(4.6)	0.9	0.8	0.9	+0.0	0.9
금융·보험	(4.2)	0.2	0.7	0.9	+0.2	5.3
문화·기타	(2.8)	0.5	0.6	0.7	+0.1	1.4
숙박·음식점	(2.2)	3.1	3.4	3.5	+0.1	4.1
정보통신	(1.5)	0.4	0.6	1.1	+0.5	2.8
건설업	(8.0)	2.3	2.2	2.5	+0.3	3.2

주: 1) 괄호 안은 2022년 기준 지역 GRDP 대비 산업별 명목 GRDP의 비중
 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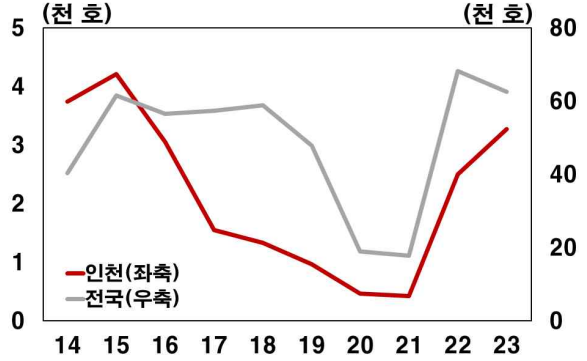
- 인천지역 **건설업(+58.0%)**과 **부동산(+42.1%)** 또한 코로나19 기간중 **대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**
 - 2022년 이후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는 등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동 업종의 자금 사정이 악화

주택매매가격지수¹⁾



주: 1) 연말 기준
자료: 한국부동산원

미분양 주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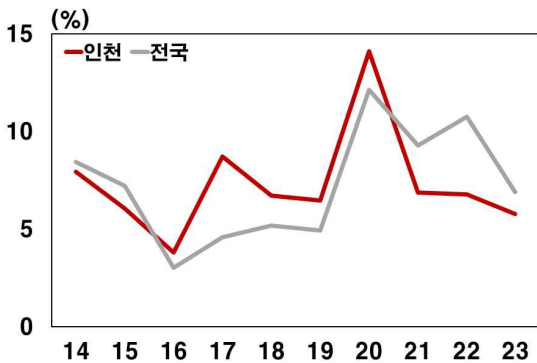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토교통부

□ 그러나, 코로나19 기간중 **인천지역의 산업별 대출금 증가율(+37.7%)은 전국 수준(+41.3%)을 하회**함에 따라 지역 내 기업이 **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**

○ 2023년 기준 인천지역 예금은행 산업별 대출금 중 운영자금 총액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31.6% 증가하였으나, 전국은 41.8% 증가

○ 부동산을 제외한 서비스업 세부업종의 운영자금은 동 기간중 인천은 39.0% 증가에 그치며, 특·광역시 중 울산 다음의 최하위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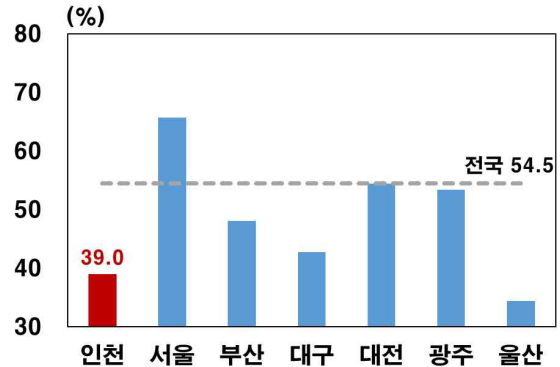
예금은행 산업별 대출금 증가율¹⁾



주: 1) 전년말 대비 증가율

자료: 한국은행

지역별 서비스업¹⁾ 운영자금²⁾ 증가율³⁾



주: 1) 부동산업 제외

2) 예금은행 산업별 대출금 운영자금 기준

3) 2019년말 대비 2023년말 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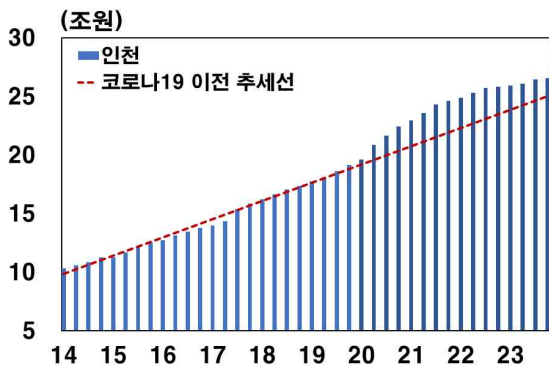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3 높은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

□ 인천지역 예금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은 2023년말 기준 26.5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대비 38.8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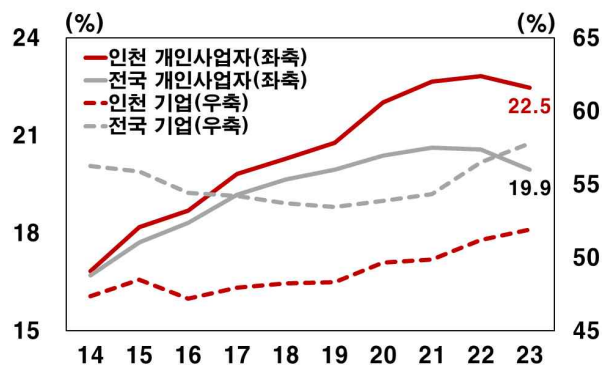
- 이러한 대출 증가세는 코로나19에 의한 매출 부진 등으로 여신 수요가 증가하고, 정부의 금융지원조치 등으로 공급 또한 증가한 데 주로 기인
- 인천지역은 동 기간 중 예금은행 기업대출 증가율(+38.0%)이 전국 수준(+44.0%)을 하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(+38.8%)은 전국 수준(+33.0%)을 상회함에 따라 인천지역 개인사업자의 대출의존도가 높았음을 시사

인천 예금은행 개인사업자 대출¹⁾



주: 1) 분기말 잔액 기준
자료: 국내은행 업무보고서

예금은행 여신 대비 대출 비중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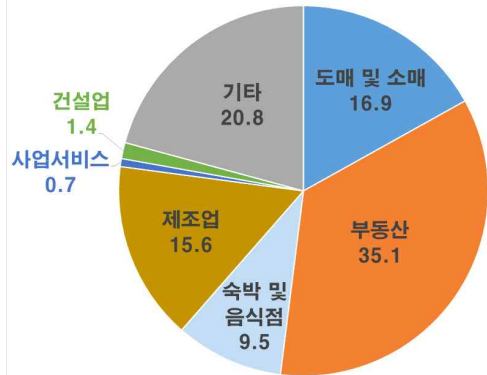


주: 1) 연말 잔액 기준
자료: 한국은행

□ 인천의 높은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기간 중 대출액 증가가 컸던 산업의 개인사업체 비중이 인천지역에서 전국 대비 높음에 기인

- 2023년말 기준 코로나19 이전 대비 예금은행 산업별 대출금의 산업별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인천지역 산업은 도·소매(+0.9%p), 사업서비스(+0.7%p), 부동산(+0.6%p) 순
- 인천지역 도·소매, 사업서비스, 부동산 업종은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전국 수준을 상회(2022년 기준 각 +2.0%p, +3.7%p, +6.0%p)

전국 개인사업자 대출¹⁾ 산업별 비중²⁾



주: 1) 전국 단위 예금은행
2) 2023년말 잔액 기준
자료: 한국은행

주요 산업별 개인사업체 비중¹⁾

산업별 ²⁾	인천(A)	전국(B)	A-B
도·소매 (5.8)	85.8	83.7	+2.0
사업서비스 (6.8)	71.4	65.4	+6.0
부동산 (7.5)	60.4	56.7	+3.7
제조업 (24.4)	68.6	69.9	-1.3
서비스업 (57.6)	82.9	79.8	+3.1
건설업 (8.0)	82.5	78.0	+4.5
전체	81.2	78.6	+2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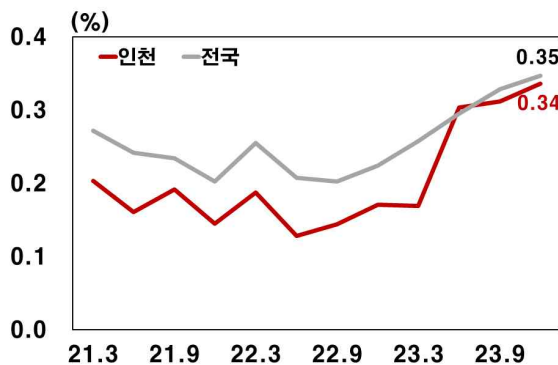
주: 1) 2022년 사업체수 기준
2) 괄호 안은 산업별 대출금 비중
자료: 통계청, 한국은행

□ 2023년 이후 고정이하여신 비율과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가 우려

- 인천지역 예금은행 개인사업체 대출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023년말 0.34%로 증가하였으며,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또한 2023년 들어 상승하여 2023년말 0.25%를 기록
-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23.9월부터 정부의 금융지원조치가 종료*됨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이 향후 증가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

*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조치 종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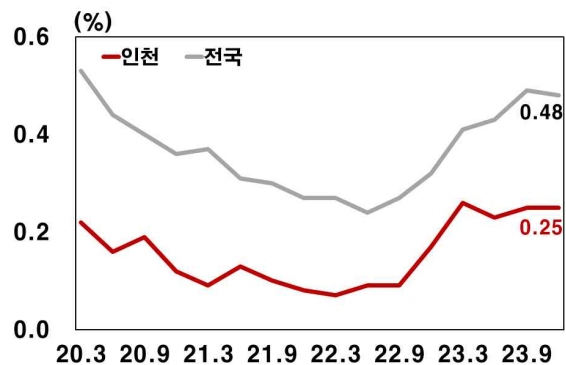
개인사업자 고정이하여신 비율¹⁾



주: 1) 분기말 기준

자료: 국내은행 업무보고서

중소기업대출¹⁾ 연체율²⁾



주: 1) 2023년말 잔액기준 예금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의 47.2%에 해당
2) 분기말 기준

자료: 금융감독원

IV. 평가 및 요약

- 인천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, 이후 증가율이 하락하는 추세
 - 가계대출은 여신금리 인상, 대출규제,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2022년부터 기타대출이 감소로 전환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또한 하락
 - 기업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적 악화와 불확실성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노력 등에 기인하여 2020년중 급증하였으나, 이후 기업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증가율이 둔화

- 인천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증가하였으나, 최근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
 - 예비적 동기 및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등에 기인하여 수신 증가율은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 직후(2020~21년중) 상승
 - 그러나, 2022년 이후 예금은행 요구불예금과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수신 증가율이 둔화

- 세부업종별로는 코로나19 기간중 피해가 컸던 세부업종과 부동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별 대출금이 증가
 - 도·소매, 사업서비스, 숙박·음식업과 건설업, 부동산업의 코로나19 기간중 대출금 증가율이 인천지역 평균을 상회
 - 그러나, 인천지역의 산업별대출의 증가율은 전국 수준을 하회함에 따라 지역 내 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

- 인천지역 예금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은 인천지역의 전국 대비 낮은 기업대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전국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
 - 개인사업자의 대출의존도가 인천지역에서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, 최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됨에 따라 향후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

< 참고문헌 >

김보석(2021), “인천지역 금융 현황 및 주요 특징”, 한국은행 인천본부

김주현(2022), “팬데믹 이후 강원지역 금융의 특징적 변화 및 시사점”, 한국은행
광주전남본부

김하운(2020), “인천사람도 다시보는 인천경제이야기”, 글누림

박으뜸·김동준(2023), “코로나19 이후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·수신의 주요 특징 및
시사점”, 한국은행 제주본부

송재만(2017), “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”, 하나금융경제연구소

정나리(2022), “금리인상기 대구경북지역 여수신 특징 및 시사점”, 한국은행 대구
경북본부

한국은행(2022.6, 2023.12), “금융안정보고서”, 한국은행